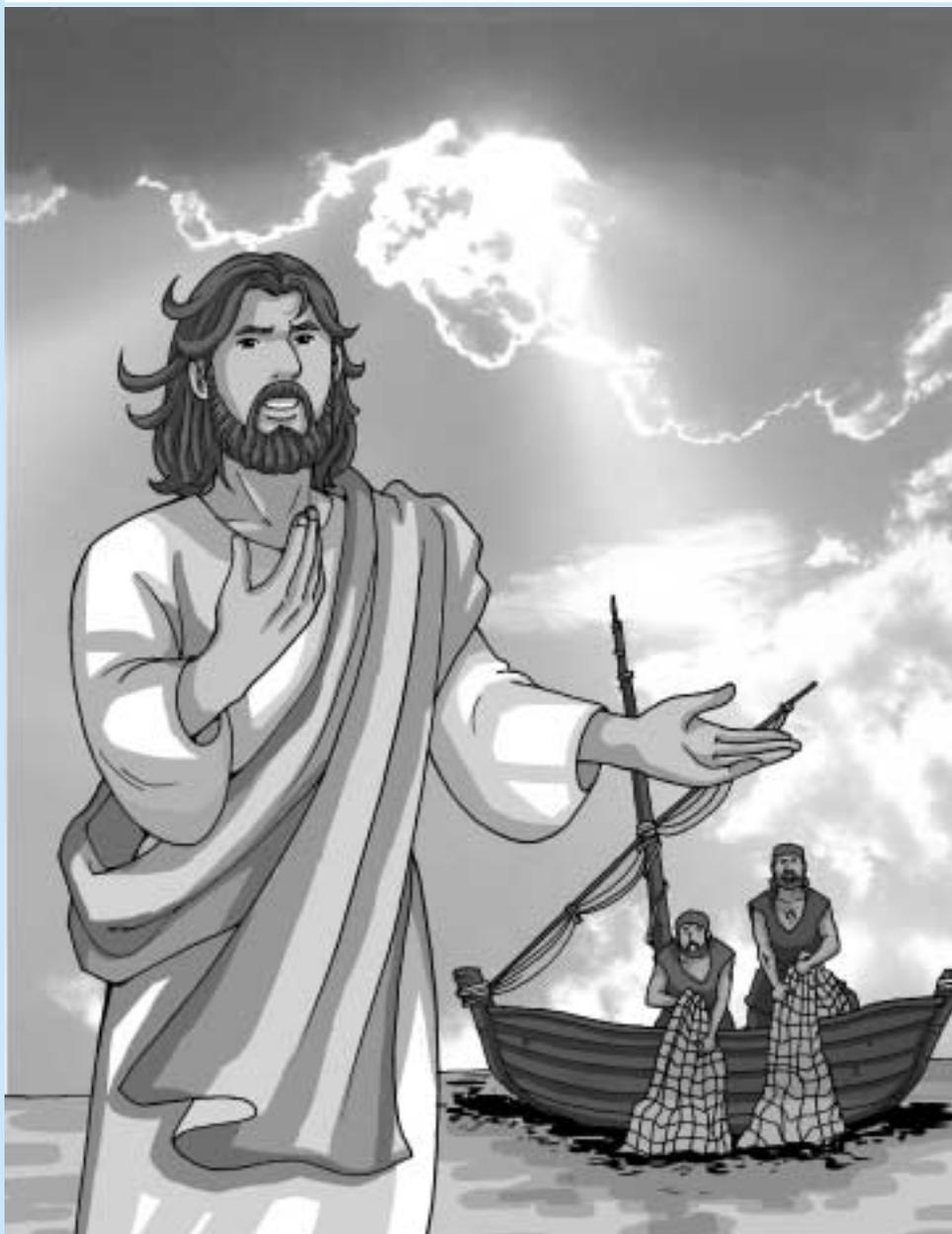


31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18-22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1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18~22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더 가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26)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18~22

31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외에도 세리인 마태, 빌립 등 총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따라 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19)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와 안드레 :

야고보와 요한 :



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더욱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것에 충성된 자는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것에
불의한 자는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10)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이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아래 그림에서 골라 보세요.



()



()



()



()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
.....
.....



예 화



승리의 비결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큰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강한 아랍을 6일 만에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의 베긴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베긴 총리는 짙막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란

Blank space for writing about parents.

선생님란

Blank space for writing about teachers.